신년사

창의에 의한 무한한 도전만이

정유년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던 건설 산업이 정부의 부양정책에 의하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가계로 돌아간 정책의 결과가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에 불어 닥친 혼란의 소용돌이가 올해에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여 일상에서 정상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금융, 주택, 실물 경기 간 순환 고리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저금리 기조 위에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부추겨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순탄치가 않아 이 부분 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치·사회적인 혼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의 부담이 소비 여력마저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건설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의하면 향후 2~3년 이내에 수주절벽과 매출절벽이 연달아 올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은 가운데 작금의 현실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그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모두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종래와는 차별화된 대책으로 흔들림 없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파워를 통한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이나 제품 자체의 지능화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건설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Smart city나 IoT를 접목한 각종 첨단 편의 시설물들이 요구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로 에너지 대책, 지진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대책 등 많은 분야에서 지능화된 시설물의 수요가 증산되고 있는 것이 4차 건설혁명의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물 생산의 자동화를 최상의 가치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시설물(즉 상품) 자체를 지능화하여 그 차별화로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2017년 한 해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하여 또는 차별화된 상품 생산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즉 우리 각자가 현상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틈새시장을 만들고 연관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체질에 맞는 새로운 분야에로의 진출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건설시장의 물량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출국과의 협력패턴을 지금과는 다른 각도에서도 접근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능력에 맞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더욱 가속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항상 나의 입장과 주변 환경을 비교 판단하여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생활방식을 스스로 영위하며 무한히 변해가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는 "최상은 앞으로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한 해도 회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유년 새해아침

한국CM협회 **배 영 휘**